

대구 ‘D-푸드’ ... 美수출 확대 나서

대구식품 수출 협의체 구성 “최근 5년 年평균 4%↑ 성장” 지역 식품업체들 수출 과정 겪는 애로사항·정보공유 등

대구시는 대구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수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식품(D-푸드) 수출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개최된 대구식품 수출 협의회는 지역 식품의 수출 증대를 통한 대구 식품산업 육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출업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구식품 수출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문을 위해 식품업계와 학계, 수출지원 기관 및 단체 등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지역 식품업체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문과 정보공유 등으로 대구 식품의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9월, LA 한인축제에 처음 참가해 48종의 제품 전량을 판매하여 3억 2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으며, 현지 바이어와 진행한 상담회에서도 1억 8백만 불의 상담실적과 9백만 불 수출 협약을 체결해 대미 수출에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2,199억 불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4억 5천만 불이다.

미국의 식품시장은 한인 중심의 교포시장과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중심의 주류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K-드라마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K-푸드 가운데 취식 간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는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첫 단추로 대구식품 수출 협의회를 개최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기호와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과 유통 시장별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세계 식품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미국 식품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수출 중심의 대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 식품이 미국 식품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달서대로 일부 구간 5개→6개 차로 확장

교통량 증가 출·퇴근 지·정체 해당 구간 혼잡 개선공사 완료

대구시는 성서공단 주변 주요간선도로인 달서대로(대천교삼거리~유천포스코네거리, 연장 640m) 일부 구간의 차로를 5개 차로에서 6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이달 14일에 마무리해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4차순환도로 일부 구간인 달서대로는 성서산업단지 및 인근 주거지역(월배, 상인, 대곡지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최근 4차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 및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 극심한 지·정체로 이용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던 지점이다.

달서대로 유천교 방면 구간은 직진차로 용량 부족과 짧은 교차로 간격으로 인해 달서대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성서산업단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뒤엉켜 차량 대기 길이가 약 900m까지 발생하고 이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7분 정도 소요돼, 시민들의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시는 2023년 11월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혼잡 개선공사를 착공해 달서대로 유천교 방면 연장 640m의 차로수를 5개 차로에서 6개 차로로 확장하고, 직진차로수 4개 차로를 확보해 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개선했다.

조여은 기자

내년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 실시

공립 60명 모집 565명 지원 사립 경우 8.61대 1 경쟁률

대구시교육청은 11월 23일(토) 09:00~14:30, 대구상원고와 경북기계공업고에서 ‘2025학년도 대구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 1차 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화) 밝혔다.

시험과목은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이며, 1교시는 논술형, 2·3교시는 단답형·서술형으로 치러진다.

1차 시험에서 △공립은 60명 모집에 565명이 지원해 9.42대 1, △사립은 72명 모집에 620명이 지원해 8.6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응시자별 지원 분야(공립, 사립), 교과 등에 따라 시험장소와 입실완료시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본인의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를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공립 1차 시험 합격자는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을 통해 12월 26일(목) 발표할 예정이며, 2차 시험은 2025년 1월 15일(수), 1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모집 분야별로 실시되고, 2025년 2월 11일(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립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 학교 법인 누리집에서 12월 26일(목) 발표 예정이며, 2차 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인별 전형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김성용 기자

강한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jm.net

최창 손경찬 |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말 · 멋 · 맛 직접 체험” 대구시교육청은 17~23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3개 나라의 학생과 한국어 교사 등 35명을 초청해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호주 시드니 등 3개국에서 학생 79명이 참여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말 · 멋 · 맛 나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7~23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3개 나라의 학생과 한국어 교사 등 35명을 초청해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호주 시드니 등 3개국에서 학생 79명이 참여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말 · 멋 · 맛 나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22일까지 개최

669부스 비수도권 최대 규모 대구·경북 ‘소부장 특별관’ 조성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완성품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 모인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 25회를 맞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DAMEX 2024)’은 157개사 483부스 규모로 조성되며 스마트공장 구현기술, 첨단 공작기계·설비 등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기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구·금형, 제어계측·검사기기 등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9 회 국제 첨단 소재 부품 산업전(Parts&Materials Show 2024)’에는 국내외 첨단 소재기업 94개사가 참가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완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킬 부품 소재 기술들을 선보인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소재·부품·장비 R&D 기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지역 ‘소부장 특별관’을 조성하고 세아창원특수강, 화진기술, 알맥 등 15개 기업이 참가해 소부장 R&D 우수과제와 성과를 선보인다. 황태용 기자

달성군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최우수 선정

만성질환자·고위험군 발견 관리 조기증상 홍보·교육 공모전 ‘대상’

원단에서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 △우수사례까지 총 4개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수상한 ‘최우수 기관상’은 지난 4일 대구경북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관한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홍보 및 교육 공모전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 심뇌혈관질환 관련 두 번째 수상이다. 달성군이 이토록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적극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 연례표준화 사망률에 따르면 달성군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이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뇌혈관질환이 5위를 기록했다. 주요 사망요인 중 하나로 알려진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 생활습관이나 만성질환의 관리·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조여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660g 미숙아 안전하게 치료 퇴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난해 134명 극소 저체중 치료

계명대 동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몸무게 660g의 미숙아를 안전하게 치료해 퇴원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미숙아는 지난 1월2일 산모 A씨의 임신 23주 차 때 660g으로 태어났다.

A씨는 이전에도 조산 이력이 있었다. 당일 조기진통을 겪어 급하게 경주의 한 산부인과를 방문했으나 생존한계주수의 아기를 분만할 곳을 찾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전원하게 됐다.

미숙아의 경우 전국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사례에 속하고 생존한계주수에 가까워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

특히 아기가 큰 장에 없이 건강하게 퇴원할 확률은 15~2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산부인과 이기수 교수는 “산모가 조기진통으로 분원에 왔을 때 초동 처치가 매우 중요했다”며 “더군다나 아기도 거꾸로 위치하고 있어 긴급 제왕절개를 진행했고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분만 직전까지 함께하며 초동 처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치료센터의 의료진 덕분에 성장한 아기는 4.12kg으로 몸무게가 늘었고 큰 후유증 없이 퇴원했다. 현재는 외래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아기의 부모도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미숙아 치료로 300만 원을 기부했다.’

통합치료센터는 2019년 4월 성서 새 병원으로 이전 후 연 평균 600여명의 신생아가 입원해 치료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34명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1500g 미만)를 치료했다.

통합치료센터는 대구·경북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분만 건수는 최근 4년간 대구·경북을 넘어 비수도권 지역 1등을 기록했다. 미숙아 출산과 고위험 산모 관리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황태용 기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경주 청소년 드론동아리 성과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론동아리 '청운(靑雲)'이 지난 16일 장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장원특례시장배 전국드론농구대회'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3:3 팀전 형식으로, 농구 경기용 드론을 이용해 상대 골대에 골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운(靑雲)'은 두 개팀으로 출전해 청운-2팀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청운-1팀은 조별리그에서 3승 전승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영덕 안전재난과, 농촌 돕기

영덕군 안전재난과 직원들과 관내 민간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40여 명이 지난 18일 영해면 벌영리의 한 사과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합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사과 수확철을 맞아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사과재배 농가에서 출하를 앞둔 사과 따기와 운반, 선별 작업 등을 진행했으며,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농촌의 실정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강신열 안전재난과장은 "최근의 물가인상과 고임금이 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서로 돕고 나누는 실천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송의용소방대, 가솔경연대회

청송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는 11월 19일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제3회 소방가솔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기술능력 향상과, 의용소방대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심상훈 군의회의 의장, 문정환 청송소방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읍·면 의용소방대 10개대가 참가해 에어로빅 시연, 수관볼링, 조끼릴레이, 쟁반 공치기, 노래자랑 등을 통해 평소 갖고있던 소방가솔경연을 펼쳤고,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외동지역 3개 R&D센터 중심 e-모빌리티 연구 단지 조성 도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Mobility)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의 장이 경주서 마련됐다.

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힐튼호텔 경주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경주의 혁신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4 경북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 개최식에는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국장, 송호준 경주부시장, 배진석 도의회 부

의장, 황명강 도의원, 임철 경주시의회 부의장,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첫째 날 기조강연, 초청강연, 패널 토론을 시작으로 둘째 날 기업지원 성과보고회, 기술 세미나를 비롯해 이틀간 모빌리티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된다.

첫째 날 기조강연은 아사프 포르모자(이스라엘, 시티 트랜스포머 CEO)의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과 비전(모빌리티 기술의 트렌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초청강연은 △선탄 싱가포르 킬사글로벌 공동대표(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초대회장(미래 모빌리티 기술정책 및 발전동향)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

원장(미래 모빌리티 산업 핵심 기술개발 및 동향) 등의 주제로 펼쳐졌다.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초대회장을 좌장으로 신진기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을 포함한 6명의 패널들이 제4차 산업혁명 속 경주 모빌리티 기존 인프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과 객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지역 기업지원 사업 중 예코플러스틱㈜, 한호산업 등 우수사례 5곳을 선정해 성과보고회가 개최된다. 또 이요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석 연구원 등 5명의 전문가들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을 주제로 연사별 강연 발표가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틀간 전시관에서는 모빌리티 내연기관 및 전

기차 제품 9종, 모빌리티 완제품 5종, 성과보고회 제품 등이 전시돼 관련 산업의 추세를 파악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공유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경주시는 외동지역에 3개의 R&D센터를 중심으로 e-모빌리티 연구 단지를 조성해 미래차 전환으로의 산업적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부품 생산 1등 산업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송호준 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확보하고자 산·학·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차 전환의 산업적 요구에 전략적 대응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용환 기자

울릉군생활개선회, 행복 더하기

울릉군생활개선회는 18일 울릉군 북면 현포리의 청소년 만남의장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31일 남서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효 행사와 9월 11일서면 태하리 송담실 베타운에서 가족이 그리운 어르신들을 위한 효 행사에 이어 3번째로 회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최근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울릉도 독도리 난타 공연단의 다이나믹한 공연으로 참석한 주민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는데 이어 생활개선회원들이 틈틈이 연습한 라인댄스와 아랑고고장구 공연을 선보여 어르신들도 즐거움에 어깨춤이 절로 나게 하는 공연이었다.

마지막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선보인 장구반주와 구수한 민요 독창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여 회원들이 가진 재능과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기숙 울릉군생활개선회장은 "생업이 있는 회원들께서 바쁜 와중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선행을 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함께한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남한권 군수는 "바쁜 일상에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효를 실행하는 회원들의 모습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청송군 '갑오의병' 창 의 학술회의

청송군은 지난 18일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실내 집회장에서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주관으로 '갑오의병 창 의 1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항일의병,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항일의병의 역사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현충시설 및 기념관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 선양해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는 신규 연구자를 양성하는 한편, 한말 항일의병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전문 연구자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연구 결과물은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현장에서 항일의병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항일의병기념공원의 해설봉사단 교육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희원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항일의병의 역사 연구와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항일의병의 역사와 그 의미를 미래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송군은 지역사회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교육과 문화로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영덕군 해파랑대학 종강식

영덕군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8개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2024년 영덕군 해파랑대학 종강식'을 지난 13일과 15일 이틀간 개최했다. 올해 노인대학은 △여가·사회활동 참여 욕구 충족 △취미·교양·생활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한방·운동·테라피 등 웰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16주간 이뤄진 총 누적 인원 4,024명이 참여했다.

조여은 기자

포항시장, 튀르키예에서 교류협력의향서 체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참가 문화예술 창작·전시 교류 등

이강덕 포항시장은 19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로 대한민국 포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고유 브랜드를 가진 국제 마이스 산업 도시 '포항', 글로벌 문화예술 관광 거점도시 '포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을 방문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시장은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해 포항의 탄소중립 실현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며 포항이 가진 경쟁력을 대외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각국 정부의 대표와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과 소통하며 대규모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기틀을 확실하게 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장에서 포항시는 2025년 상반기 유엔기후변화 글로벌혁신허브(UGIH)의 부속 회의인

SIW 포항 개최를 유지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유엔 기후행동 플랫폼인 UGIH의 프로젝트 회의로 12개국 100여 명이 참가해 도시의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의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회의의 유치를 위해 에마니 쿠마 이클레이(세계지방법정부협의회) 부사무총장, 마삼바 티오에 유엔 글로벌혁신허브 총괄 책임자, 조웅 조우 UNIDO 부국장 등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국제회의의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였다.

포항시는 이클레이로부터 아시아태평양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ies Asia Pacific) 개최 등을 제안받았으며,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이클레이 주최 기후총회에서 포항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튀르키예에서는 문화예술의 도시 베이올루구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며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두 도시는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 교류를 비롯해 지역 관광 프로그램, 민간 및 인적 교류에 상호 협력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매

우호 도시 협약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세계적 명문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대학교를 방문해 신산업 대전환을 이뤄낸 포항의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스탄불대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을 '포항 글로벌 SNS 서포터즈'로 임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와 관광자원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포항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해 지원 시책 발굴에 나서고, 20일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해결책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 활강산업의 위기는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특산물 밀키트 요리경진대회 열려

전국서 본선 진출자 9팀 선정 외식 마케팅 분야 전문가 심사

울진군은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울진 특산물 밀키트 요리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울진의 산과 바다에서 나는 신선하고 다양한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울진바지게시장의 특화먹거리 신메뉴 아이템 발굴을 통해 시장의 인지도 제고 및 기존 음식 점포의 메뉴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었다.

요리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본선 진출자 9팀 중 외식 마케팅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팀(울진 물가자미 회튀김), 우수상 1팀(울진

미역 리조토&가자미감자밥), 장려상 2팀(울진대게 만두 전골, 울진 소라 비빔국수)를 선정하였다.

행사장에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플레이팅 맛집을 선정하는 별점스타커 평가를 통해 대회를 찾은 지역민과 관광객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재탁 울진바지게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울진바지게시장은 공산품 위주 점포에 비해 먹거리가 빈약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어 시장 발전과 특화먹거리의 발굴을 위해 이번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했다"라고 말했다.

반기동 울진바지게시장 상인회장은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울진바지게시장은 울진군 대표 전통시장으로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야시장 행사를 통해 먹거리가 다양한 시장으로 변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의 특산물로 진행된 이번 요리경진대회를 통해 울진바지게시장만의 특화된 먹거리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산시의사회, 나눔 물품 기부

경산시의사회는 15일 경산시 중 방동 소재 스토르게그룹을 방문하여 서랍장 등 가구 물품(80만 원 상당)을 전달했으며, 18일에는 경북사회의집을 방문해 전기밥솥과 가구 물품(80만 원 상당)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경산시의사회는 매년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실천 활동으로 물품 나눔뿐만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견희 경산시의사회장은 “경산시의사회의 이웃사랑 물품 나눔이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분들에게는 미래의 믿음이 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영천 금호읍, 김장 김치 나눔

영천시 금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사랑담은 김장김치 나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금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아름다운 마음들의 모임(이하 아마모) 봉사단체 회원들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아마모에서 직접 농사지는 배추로 김장한 김치를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으며, 재료비 일부는 금호읍 주민들이 모은 ‘함께모아 행복금고’ 적립금으로 추진됐다.

4일에 걸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확한 배추를 다듬고 절여 깨끗이 씻은 후, 양념에 버무려 정갈하게 담은 김치를 1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아마모 회원,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했다.

청도군, 현안사업 홍보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국·도비 확보액 증액 진행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면담 등 국비 확보 활동 분주

청도군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를 차례로 면담하며, 청도군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경산~청도 간 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덕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각남

면 녹명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경 뮤지컬화랑 천년의 문턱에 꽃피 내리다 제작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1차 가내시 기준, 2025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2024년 대비 103억 원이 증액된 2,243억 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갑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현안 사업들에 반드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 열



차처럼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국비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 3월 2025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이은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면담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로 세수 감소와 교부세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예산을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청도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조여은 기자

경산, 37개소 ‘우수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수여

서비스 질적 향상 2년마다 실시
위생업소 시 홈페이지 결과 공개

경산시는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소로 선정된 37개소에 대해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수 공중위생업소’ 표지판을 수여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2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며, 평가 항목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준수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이며, 권장사항은 시설 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녹색등급), 우수 업소(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로 구분·선정했다.

경산시는 우수업소로 선정된 37개소에 ‘THE BEST 업소’ 표지판과 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누리

집을 통한 전국적인 이용 안내 홍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외지인들이 경산 방문 시 우수업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시민들이 공중위생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경산시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중위생 우수업소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산을 대표하는 우수업소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금처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의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칠곡, 대구미술관 견학 행사

칠곡교육문화회관은 13일,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진행된 현장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에는 재학생 40여명이 참여하여 대구미술관과 대구간송미술관을 견학하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대학생들은 현장학습을 통해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합을 다졌다.

칠곡평생학습대학의 이번 현장학습은 대학생들이 예술과 문화를 체험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단합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 운영 협약

고령-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대부분 사업들 고령분관 점목

고령군과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8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의 위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를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상지원, 교육지원, 긴급지원과 같이 대부분의 사업들을 고령분관에 점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군 부군수(김종복)는 이날 협약식에서 “고령군 장애인들의 오랜 열원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고령군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배영백 기자

성주군 선남면, 참외 접목 작업 농가 방문

성주군 선남면은 지난 10월 29일 취귀리를 시작으로 내년도 참외 조수입 7,000억 달성의 첫걸음인 참외 접목을 하는 관내 농가에 방문하고 있다. 11월 19일, 참외 접목을 하는 농가(유서리 유대중)에 방문했다.

유대중 농가는 내년 3월 중순경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초시포 품종의 모종 16,000여개를 준비하였다. 참외 접목은 한해 농사의 시작으로 튼튼한 뿌리가 될 호박과 열매가 수확될 참외 모종을 서로 붙이는 작업을 말하며, 매년 성주군 농가에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접목한 뒤, 11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정식한다. 도재훈 기자

영천시 제2파크골프장 정식 개장 들어가

오수동 위치 36홀 규모
환경청 정식 행정 완료

영천시는 오수동에 위치한 36홀 규모의 영천 제2파크골프장을 19일부터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 2021년 3월 예산 신청을 시작으로 환경청과의 정식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총 10억원(국비 3억, 시비 7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지 면적 40,934㎡, 36홀 규모의 오수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오수파크골프장은 굴곡진 코스와 나무 등의 장애물이 있어 조교파크골프장에 비해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또한 파크골프장 내에는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비가림 막구조물, 펜스, 정자, 화장실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조성돼 있어 골프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오수파크골프장을 개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파크골프 도시 영천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 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그 수가 1,600명을 넘어 기존 조교파크골프장(‘22년 개장)만으로는 이용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오수파크골프장 개장을 통해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하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김천신협, 김치 300박스 전달

김천시는 지난 18일 김천신협에서 김치(6kg) 3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천신협은 2009년부터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손수 담근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나눔과 상생을 이끄는 금융협동조합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최윤애 이사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신협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경시새마을회, 김장 나눔

문경시와 문경시새마을회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2024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문경시새마을회가 주최하며, 새마을지도자 700여 명이 참여하여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읍면동별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김장담가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직접 심고 키워서 수확한 배추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배추 절임과 양념까지 손수 준비하는 등 모든 과정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더욱 큰 의미를 더했다.

정성껏 담은 4천여 포기의 김장김치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각 읍면동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1천4백여 가구를 선정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구미, 2028년까지 반도체인력 1400명↑양성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4년간 예산 약 300억원 투입
이론과 실무 겸비 현장 인재

구미시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19일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사업단 출범식에는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박호상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참여기업 관계자와 교원, 학생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장이 '반도체특화단지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단장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설명 및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SK실트론, 원익큐엔씨, KEC 등 참여기업이 간담회를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금오공과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7월 동반성장형 분야로 선정됐다.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280억 원과 지방비 20억 원을 포함한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400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목표다.

사업단은 반도체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소재·부품·장비, 회로시스템, 소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론

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 연계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은 “구미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단은 학생들이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영주 기자



의성군 행복마을자치사업 1단계 15개 마을 교육

마을별 5명 주민 참여
3회차 총 15시간 진행

의성군은 2025년 행복마을자치사업 1단계(키움) 참여를 희망하는 15개 마을, 주민 75명을 대상으로 11월 27일까지 비안만세센터에서 '마을자치학교'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자치학교는 각 마을별 5명의 주민이 참여

하여, 동부·서부로 나누어 각 3회차 총 15시간 동안 진행되며 마을자치의 필요성과 의미, 행복마을 자치사업의 의의, 농촌공동체의 특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행복의성지원센터 유정규 센터장의 강연과 행복마을자치사업에 참여한 마을 대표들의 사례소개 및 경험 공유, 퍼실리테이터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은 사례발표를 진행한 관내

신평면 중흥1리, 구천면 모흥3리, 춘산면 옥정4리 마을을 방문하여 공동체 활동과 마을경관 사업, 마을기업에 관한 선진사례 학습 탐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마을자치학교는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주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참여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 30개 자율방범대 청소년 보호 활동

경북 'K 보듬 6000' 사업 일환
청소년들 중심 특별순찰 강화

구미시는 14일 수능이 끝난 후, 지역 내 20개 읍·동에서 30개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특별순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순찰은 경상북도의 'K 보듬 60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도내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특별순찰은 각 지역 실정에 밝은 자율방범대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 방범대는 지역 내 돌봄센

터 14개소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주요 동선과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순찰을 강화한다.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이나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구미시에는 35개 자율방범대와 90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더욱 공고한 지위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치안 강화와 각종 행사 및 재난 현장에서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송영주 기자

구미, 대기 4·5종 사업장 방지 설치 지원

내년 6월 30일까지 의무화
12월 10일까지 선착순 접수

구미시는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소규모 대기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온도, 차압 등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

시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법정 부착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한편,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영주 기자





준비된 땅 상주!

임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를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이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한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지 의지

'병시민 유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지 홍보활동 전개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하회마을보존회, 김장 나눔

안동시 하회마을보존회는 동절 기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6일 “하회마을 김장 나눔” 행사를 열어 김장김치 100박스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하회마을보존회는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 문화공연과 김치 시식회를 함께 진행해 참여자와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평소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과 상호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탁은 하회마을보존회와 지역 주민의 협력으로 하회마을 충효당 앞마당에서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였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 알찬신희, 성품 기부

영주 알찬신희는 지난 18일 휴전 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불 18채를 기부했다.

영주 알찬신희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캠페인은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천하고 있다.

장훈식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예천 금당실마을, 장터 운영

예천군 금당실정보화마을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면 종합복지회관 전정에서 금당실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금당실 나눔장터는 2021년부터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재사용·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기부와 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집에서 잔자고 있는 의류, 생활용품, 전자제품, 책 등을 기부받아 나눔장터를 통해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 및 먹거리 장터도 함께 운영하며 행사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특히, 지난 3년간 1,290만원을 누적 기부하여 올해 5월에는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리더스클럽 회원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정례회에서 내년도 군정 방향 밝혀
관광명소 도약 등 핵심 3대 비전
스마트 농업 군전역 확산 계획
5개 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박현국 봉화군수는 19일 제2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올해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 2040 비전 선포식을 통해 농업구조 혁신을 통한 뉴 패러다임 창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봉화형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글로벌 관광명소 도약 등 핵심 3대 비전을 제시했고, 치유산업 국제 세미나를 통한 치유산업 선도도시 입지 선점,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 준공,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운영을 비롯해 군정을 활발히 추진하며 지역발전의 앞장섰다.

또 시정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혁신 영농기반 구축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전환 △봉화만의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 최고 관광도시 도약 △돈이 되는 산림,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산림 활용성 제고 △차별 없는 포용적 복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봉화 실현 △지역개발을 통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등 내년도 6가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스마트 농업을 군전역에 확산시키고,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 정책인 푸드플랜 본격 추진으로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물론, 혁신농업타운을 필두로한 이모작 영농기반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 작물 개발,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 등 봉화 농산물의 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하고 외국인 근로자 교류 국가 확



대와 외국인 보금자리 사업 조기 완공으로 농촌 일손 부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이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봉화출양 일대 5개 지구에 추진 중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공간을 채워나간다. 또 테마형 주택단지 조성사업도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래 지향적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최대 관광사업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을 봉화관광 벨류업의 핵심사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여기에 의료 치유 등 다양한 치유테마를 접목해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간다.

또 대중골프장,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전문 유산을 활용한 공립 천문과학관 유치에도 문을 두드려 차세대 문화관광 메카로 육성시켜 나간다.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 팻빌리지 조성사업 등 기존 역점사업들은 잘 마무리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1읍면 1생활체육공원 조성, 다목적 도서관 건립 등 군민들의 문화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산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역에 돈이 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로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숲을 활용한 이색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유아 숲 체험원, 동서 트레일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물론, 배두대간 친환경 목재 생산단지를 지역 임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고, 국립산림안전원, 산림교육원 등 국립산림기관 유치에도 노력한다.

또한 차별 없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인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과 함께 목욕, 이미용관 등 세심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의 놀이터 등

맞춤형 인프라를 추가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 정책 발굴은 물론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지원 등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군민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고자 봉화,출양 도시재생사업과 법전, 석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면 소재지 개발로 농촌 뉴딜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총괄 준공 시기를 앞당겨 도시공간 활용성을 대폭 높여가고, 농촌빈집 정비, 민간아파트 건립 등 현안사업 해결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에 앞장선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사업과 각종 재해예방 사업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는 물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의 선결과제인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5,400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가한 5,620억 원으로 총규모는 4.07% 증가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규모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1,428억 원, 주민 복리증진에 1,078억 원, 환경보호와 재난방지에 915억 원 순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예산을 배분했고, 선심성, 남비성 예산을 최소화해 군민의 세금이 한 톨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참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이 행복한 봉화, 더 큰 도약이 함께하는 위대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2024 경북 에너지대상 ‘대상’ 수상

8개 항목 에너지 분야 실적 선정
신재생 융복합 3년 연속 공모 뽑혀

영주시는 19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에너지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분야 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에너지절약점검·단속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점검 △주민 참여 및 도(道) 정책 달성 기여도 등 총 8개 항목을 평가해 에너지 분야의 우수실적을 선정하는 상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그린에너지 도시 건설 및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 북부권(풍기읍, 순흥, 단산, 부석, 안성), 2023년 남부권(봉현,이산,평은,문수,장수), 2024년 시내권역(9개동 지역)에 총사업비 109억 원(국도비 58억, 시비 34억, 자부담 17억)을 투입해 태양광 1,314개소, 태양열 83개소, 지열 94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개인 주택 등에서 연간 약 10억 원의 전기요금 및 난방 연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도농 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촌지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21억 원) △시내 지역 323세대 도시가스 공급사업(10억 원) △노후 전기설비(가로동) 교체 등 에너지절약사업(10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52억 원) 등 총 93억 원을 투입해 탄소중립 그린도시·에너지 행복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영주가 지속 가능한 그린에너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쌀 소비 촉진 운동

(사)한국여성농업인 영양군연합회에서는 2024년 우리 쌀 소비 촉진 홍보를 위해 사랑의 떡과 쌀을 소의 계층 가구와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나눔 행사를 11월 19일에 진행했다.

다양한 식품이 넘쳐나 소비자 선택 범위가 날로 넓어지고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로 감소하고 있어,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식량 자급률향상을 위해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행사를 개최한 (사)한국여성농업인 영양군연합회 유숙화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지역주민에게 쌀의 가치를 알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쌀 소비가 촉진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권용동 기자

예천군 제4기 SNS홍보단 15명 모집

2026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
사진·동영상 촬영·편집 가능

예천군은 예천의 다양한 현장 소식을 전할 제4기 SNS홍보단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발된 홍보단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공식채널 블로그 5명 △공식채널 숏폼 영상 5명 △개인채널 블로그 5명이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모집 대상은 예천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개인 SNS 활동자로 △현장 취재가 가능하고 △SNS에 홍보 콘텐츠(사진, 동영상)를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는 자이다. 또한 서포터즈나 기자단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의지가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홍보단은 예천군의 우수 농산물과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취재하고 이를 SNS에 게시해 예천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편집 등에 능숙한 사람을 우대하며, 새로 신설된 숏폼 영상 분야는 기획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해 군정 홍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보단 활동시 ▶SNS 홍보단증 발급 ▶홍보 콘텐츠 채택 시 원고료 지급 ▶예천군 관광지 및 축제 무료 입장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천군은 SNS 홍보단을 통해 군의 다양한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예천의 매력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인재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예천군 누리집(www.ycg.kr) ‘공고/고시’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정 홍보소통과장은 “예천군의 다양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재능있는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예천군의 매력을 함께 전하는 홍보단 활동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송영주 기자

안동 청년 기업, 생태예술축제 ‘하회, 토제’

토제, 땅에 올리는 감사 의미
내년 장편 다큐멘터리 계획

안동의 청년 기업인 우주의 농담과 유니벌스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서 생태예술축제 ‘하회, 토제’를 개최하였다.

토제(討祭)는 땅에 올리는 극진한 감사의 세례 머니를 의미한다. 하회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여러 예술가와 지역민과 감사함을 나누는 의미로 기획된 ‘하회, 토제’는 행정안전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하회마을보존회, 하회마을별신굿탈놀이보존회, 하회마을회, 병산서원, 지역과소셜비즈, 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 추진단, 풍산대마작목반이 후원하였다.

축제 1일 차는 병산서원에서 이루어졌다. △호흡명상(소환) △하회마을에서 자란 콩과 볶음 나 누기(김국희) △대마 줄기를 활용한 솜대 만들기(양애진) △음악 공연(류현욱, 둔치) △건강 케이터링 저녁 식사(겨두울림)로 마무리되었다.

축제 2일 차는 하회마을로 옮겨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였다. △낙동강변 산책길 길놀이(이광영, 김국희, 김윤진) △하회마을 제사(김종홍) △대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맨발 아성(배서영, 장선현) △하회마을 밭에서 이루어진 제과 예술 명상(송다영) △염원을 담은 테스파초 만들기(보나) △공연(김준안, 류현욱) △마무리 공연(우주의 농담)으로 다음을 기약하였다.

하회마을과의 긴밀한 협업을 주도한 류한석씨(블록체인래스 대표)는 “하회마을과 깊은 인사를 나누며, 마을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을의 중심 축제로 잘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본 축제를 공동 주관한 김국희씨(유니벌스 대표)는 “마을과 자연의 관계를 기록하고, 내년도 농사와 예술의 과정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를 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축제를 공동 주관한 우주의 농담은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청년스타트업 관광기업 육성지원 사업 지원업체로 선정되어 안동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주의 농담 외에도 디자인 안디, 손수다, 협동조합 복합문화예술공간 다다(Dada)가 선정되어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송영주 기자



2024-2025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하고 **질병을 이길** 병으로!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1959.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1회

지원기간

· 75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자]		2024.10.11.[금] ~ 2025.4.30.[수]
· 70 ~ 74세 [1950.1.1. ~ 1954.12.31. 출생자]		2024.10.15.[화] ~ 2025.4.30.[수]
· 65 ~ 69세 [1955.1.1. ~ 1959.12.31. 출생자]		2024.10.18.[금] ~ 2025.4.30.[수]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